

중도의 마음이 '올바른 실천의 길'을 연다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옮김) (정병조 옮김) (정병조 옮김)

10. 실천의 원리에 대해서

중도(中道)와 정도(正道)
부처님의 근본설법인 '사제설법'에 있어서의 제사제는 소위 팔정도(八正道)를 내용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비구들이여, 고(苦)의 멸(滅)에 이르는 길의 성제란 이라하다. 그것은 성스러운 팔지(八支)의 길이다. 즉, 정견(正見), 정사(正思),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이다."

여기에서 붓다는 이 괴로운 인생의 연(緣)하여 멸하는 방도를 실현하는 실천의 항목(項目)을 설명하며, '성스러운 여덟 갈래의 길' 즉 팔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들은 거기에 불교실천의 근본항목을 볼 수 있지만 이 '성스러운 여덟 갈래의 길'은 또 붓다가 네 가지의 성제를 전개하기에 앞서 벌써 이 설법에 있어서 중도(中道)의 내용으로써 설법(設法)한 것이었다.

"비구들이여, 여래는 이 두 가지의 극단을 버리며 중도(中道)를 현등각하였다. 이것은 안(眼)을 생기게 하며 지(智)를 생기게 하며 적정(寂靜), 중지(證智), 등각(等覺), 열반(涅槃)에 도움이 되도다. 비구들이여, 무엇을 여래의 현등각한 중도(中道)라고 하는가. 그것은 즉 성스러운 팔지(八支)의 길이나라. 정견(正見), 정사(正思),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이다."

즉 붓다는 그 최초의 설법에 있어서 '성스러운 팔지의 길'을 두 번 설명하였다. 그 한 번은 이것을 중도의 내용으로써 설명하였으며 또 한 번은 네 가지의 성제의 제사제에서 이 괴로운 인생의 극복을 위한 실천 항목으로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들은 먼저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도란 것은 이것을 열면 여덟 갈래의 성도(聖道)이며 성도란 말할 것도 없이 정도(正道)이다. 더 요약해서 말하면 성(聖)이란 올바른이며 중(中) 또한 올바른인 것이다.

'올바르다'라는 것의 첫 번째 조건

그러면 도대체 '올바르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들은 불교에 있어서의 실천의 문제에 한 발자국도 들어 놓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성스러운 팔지의 길'은 모두가 '올바르다'라는 형용사로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조건을 가짐으로써 '올바르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여기에서 먼저 '성스러운 여덟 갈래의 길'의 첫째 항목인 '정견(正見)'에 관해서

그 조건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정견'은 팔정도의 제일항목일 뿐만 아니라 또 팔정도의 기체(基體)이며 다른 칠지(七支)의 길은 모두 이 '정견'을 바탕으로 하여 그 위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견(見)'이란 것은 불교의 용어로서 말한다면 관찰하며 사색(思擇)하는 것, 오늘날의 말로써 말한다면 인식작용의 활동으로서의 표상(表象)에서 판단에 이르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하여도 무방하다.

어떤 경전에서 석존은 이러한 비유(譬喩)로써 그런 것을 설명한 적이 있다. —여기에 하나의 물그릇이 있다고 하자. 그 물은 가열(加熱)되어 끓고 있다고 하자. 혹은 풀잎 같은 것에 덮혀 있다고 하자. 혹은 부는 바람에 의하여 물결치고 있다고 하자. 그럴 때에는 이 물그릇의 물은 여실하게 사물의 상(相)을 반영(反映)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붓다는 탐욕 전에 같은 것이 이러한 여실관찰(如實觀察), 여실지견(如實知見)을 방해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협잡(狹雜)하는 요소(要素)를 가리켜 복(覆, 덮는 것)이라고 말하며, 혹은 애(礙, 방해하는 것)라고도 말한다. 이런 것을 제거(除去)하고 맑고 깨끗한 주관으로써 곧 객관에 대한다는 것, 이때 일체(一切)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주관에 수용(收容)되며 주관 속에 사색(思擇)되는 것이다. 그것은 여실지견(如實知見)이라고 불려도 좋으며 정관(正觀)이라고 불려도 좋은 것이다. 그리고 무애(無礙)의 정견(定見)이라고 불려도 좋지만 이렇게 하여 망경을 떠나서 정견이 되는 것이다.

회랍의 철인(哲人)들은 진리를 알레테이아(Aletheia)란 말로 불렀다. 그 뜻도 또한 '덮혀있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이다. 덮혀 있는 것이 망견이며, 방해되어 있는 것이 망견이며, 덮혀 있지 않은 것이 진리이며, 방해되지 않는 곳에 무애(無礙)의 정견은 있는 것이다.

그 점에 우리들은 '올바르다'는 것이 되는 제일 첫 번째의 그리고 근본적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올바르다'는 것의 두 번째 조건

또 다시 우리들은 '올바르다'라는 것의 두 번째 조건으로서 '전도(顛倒)의 견(見)'이 아닌 견(見)이라는 사유 방식을 들 수 있다. 옛 경전에 '전도(顛倒)의 견(見)'이 아닌 것 이것을 정견(正見)이라고도 이름한다'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전도'라는 것은 그 판단사색(判斷思擇)에 있어서 순서에 맞지 않으며 진상을 잘못



구미 도리사의 팔정도 해설비.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자 실천 지침인 팔정도를 행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중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잡는 것이다. 큰 것을 작은 것이라고 생각 하는 것도 전도이며 작은 것을 크다고 하는 것도 전도이다. 아름다운 것을 추하다고 하는 것도 전도이며, 추한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도 전도이다. 무상(無常)하는 것(한 것)을 상(常, 변화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 하는 것도 전도이며, 괴로운 것을 즐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도 전도이다.

예부터 사전도(四顛倒)라는 말이 있다. 범부(凡夫)의 전도에 네 가지가 있다 하여 하나는 상전도(常顛倒), 이 무상한 존재를 상(常)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두 번째는 낙전도(樂顛倒), 이 괴로운 인생을 즐겁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세 번째는 정전도(淨顛倒), 부정(不淨)한 존재를 깨끗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네 번째는 아전도(我顛倒), 무아(無我)인 존재에서 아(我)를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이런 것은 불교의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 분류한 전도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들이 잘 생각하여 보면 가지각색의 전도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전도가 있는 곳에는 '올바른 견(見)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또 어떤 경전은 "허망분별(虛妄分別)은 어느 것을 근본(根本)으로 하는가. 대답하여 말하되 전도(顛倒)의 상(想)을 근본으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르다'는 것의 세 번째 조건

다시 '올바르다'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에서부터 떠난다는 것을 세 번째 조건으로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조건은 그대로 '중도(中道)'의 가르침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옛 경전은 이것을 "여래는 변(邊)을 떠나서 중(中)에 처(處)한다"는 것이

'올바른 것'에 들어가는 이유라고 한다. 그런데 극단으로 흐른다는 것은 우리들 인간의 어딘가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듯하다. 우리들은 자칫하면 오른쪽의 극단으로 흐르며 또 왼쪽의 극단에 기울어지는 일이 있다.

극단을 사색하며 극단을 실천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다. 붓다 그 사람까지도, 이러한 극단에 고집하고 있었음을 불전(佛傳)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금욕고행(禁慾苦行)에 몸을 던지면서 그것에 의해서 길을 타개하려고 하였던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님을 알고 단호히 금욕고행을 버리고 비로소 큰 길을 타개할 수가 있었다.

아마 이러한 기억을 회상하면서 붓다는 어느 때 한 제자에게 이러한 교훈을 말한 것이 아닐까.

"거문고의 줄이 느슨하면 타기에 적합한가?"

"너무 느슨하면 탈 수 없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한 것은 어떠한가?" "탈 수 없습니다."

"그와 같으니라. 거문고를 타는데도, 완급(緩急)이 적당하지 않으면 미묘한 소리를 낼 수 없느니라. 이 길의 실천도 그와 같은 것이다. 욕락(欲樂)에 빠지는 것도,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도 모두 올바른 길은 아니다. 언제나 적절하며 기울지 않는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면 열반(涅槃)의 길은 실현하지 못하리라."

즉 변(邊)을 떠나서 중도(中道)에 처(處)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몸소 체험하였으며 또 그 체험을 들어 제자들에게 설명한 '올바른' 실천의 길이었던 것이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佛法이 천년 뒤에 전해진 까닭 ④

문 부처님의 시현(示現)하심이 주(周)나라 소왕(昭王) 시대에 있었는데, 어쩌하여 그 시대에 이쪽 중국을 함께 교화하지 않고, 교법(教法)은 한(漢)나라 때에 유전하고, 선법(禪法)은 양(梁)나라 때에 이르러, 천 년의 뒤에 까지 지연되었음은 무슨 까닭인가.

답 "부처님의 법이 유행함은 반드시 시기와 운수를 의지하는데, 구차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천시(天時)를 진퇴(進退)하지 못하고 같다."

부처님이 멸도하신 뒤 다섯 뇌고(牢固)가 있는데, 다 오백세(五百歲)로 한정 한 것은 다섯 손가락은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는 것과 같다.

무릇 세상의 운세가 오백 세에 한번 변하는데 역시 오행(五行)의 감득(感得) 한 바이다.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오백년에 반드시 왕도정치(王道政治)할 자가 일어남이 있다" 하였는데, 또한 이것을 말함이다.

이른바 '다섯 뇌고'라는 것은 제일은 해탈뇌고(解脫牢固)며, 제이는 선정뇌고

치니고 한토(漢土)에 오려고 하다가 한나라 사신을 보고는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물으니, 왕준 등이 대답해 말하였다.

"한나라로부터 오는 중입니다. 한나라 조정의 천자께서 꿈에 금인(金人)을 보았는데, 이로써 칭하기를 '나는 부처이다. 멸도한 이래 지금 천세를 지났으니 큰 가르침이 동토(東土)에 유전함이 합당하다'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제자들을 파견하여 먼 길을 건너 서방의 성교(聖敎)를 찾으라 하시었습니다."

이때에 두 범승이 찬탄해 말하였다. "한나라 사신이 부처님 법을 구하고자하여 서쪽 나라에 온 다 성인의 힘이 가만히 부촉하고 인연이 회우(會遇)하여 여기에서 서로 만난 것입니다. 정(精)으로 한토에 아직 부처님의 법이 있지 않음을 알고 빈도 등이 지금 부처님 법을 받들고 여기에 왔으니 천자의 사신들은 번거롭게 서쪽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왕준 등이 비상(非常)함을 희열(喜悅)하며 예(禮)를 하여 공경을 드리고 불경(佛經)을 봉수(奉受)하여 백마(白馬)에 싣고, 두 스님과 더불어 낙양에 오니, 곧 영평 십사년(永平十四年) 사월 팔일이었다.

범승曰 "가르침 구하고자 서역에 온 것은 성인이 부촉하고 인연 회우함이니"

(禪定牢固)며, 제삼은 다문뇌고(多聞牢固)며, 제사는 복덕뇌고(福德牢固)며, 제오는 투정뇌고(瞋靜牢固)니, 이는 법문(法門)이 세상을 따라 이변(移變)하는 점 차이이다.

대체로 해탈·선정은 법이 가장 오묘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그 뜻은 또 연교(言敎)의 밖으로 떠났는데, 이것은 교법(敎法)이 이 시기를 당하여 이르지 않은 까닭이다.

만일 다문(多聞)의 시한(時限)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다문으로써 뇌고를 삼기 때문에 교법의 유행이 이때에 유행함 이 마땅한 것이다.

영평 삼년(永平三年) 사월 팔일에 왕준 등이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궐하(闕下)를 하직하고 모든 지방을 순력(巡歷)하여 오 년 만에 서천(西域) 월지국(月支國)에 도착하였다.

홀연히 길 가운데서 두 범승(梵僧)을 만났는데, 한 스님은 성(姓)은 가섭(迦葉)이고, 이름은 마등(摩騰)이었으며, 한 스님은 성은 축(竺)이고, 이름은 법란(法蘭)이었다.

그들은 범자(梵字)로 된 금강반야(金剛般若)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과 유마경(維摩經)과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을

왕준 등 세 사람이 복명(復命)하고 불경을 황제에 드리니, 황제가 크게 기뻐하여 황궁 각 천 랑(千兩)씩을 하사하시었으며, 두 스님은 호로관(鴻臚館)에 있으면서 경을 번역하도록 칙명하시고 황제께서도 수지(受持)하여 염승(念誦)하기를 쉬지 않았다.

백마(白馬)는 먼 길을 오느라 피로함으로 인하여 병들어 죽었는데 칙명으로 낙양성 서쪽에 장사 지내고 그 처소에 한 가람(伽藍)을 조성하고 편액(匾額)을 백마사(白馬寺)라 하였다.

때에 오악(五岳)의 도사(道士) 및 활대소(滑大素)와 신문신(新文信) 등이 문도(門徒) 유백여인을 거느리고 서로 말하였다.

"어찌하여 황제께서는 홀연히 미친 마음을 일으키어 우리의 도문(道門)을 버리시고, 멀리 오랑캐의 가르침을 구하여 현재는 중하게 여기고, 옛날은 가볍게 여기며, 귀로 들음을 귀히 여기고, 눈으로 보는 것은 천하게 여기는가. 누가 간하여 오랑캐 신의 가르침을 즐기고 물리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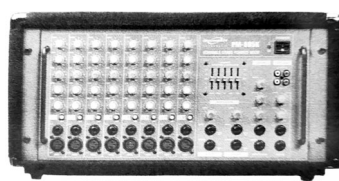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 ◇ 앰프 구성 : 스테레오 앰프 300W 1대, 소형 믹서 5채널 1대, 탁상형 구조재미크 1대,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CD기 1대, -최고급 범용 전용 스피커 1세트, YD-675 핸드 마이크 1대, 무선 핀 마이크 4채널 1세트,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 목소리가 작은 비구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경경빌딩 300호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담양 용화사 불교교육 전통문화전승승가대학개설

개강 : 2015년 양력 3월 16일 (수시접수 가능)

경애하옵는 학인스님 여러분 자아완성과 중생교화에 전념하시는 스님들께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담양 용화사에서는 우리 불교를 중흥하고 중생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불교교육과 전통불교문화 중흥이 현 작금에 절실한 시기라 시료되어 아래와 같이 학인모집을 안내드리오니 종단을 초월하여 많은 동학동려 동참을 기원합니다.

▶ 아 래 ◀

1. 중노릇하는 법
 - 사미율의 초발심사경문
 - 스님들의 필수학문 치문 (주지스님 직접강의)
 2. 예 식
 - 기본예식
 - 천수경부터 태징 치는법 요령 목탁 복치는법 · 바라 (민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 관옥바라) 회심곡
 - 거불 유치 청사 착어성 각단 소 읽는법과 소의 뜻
 - 전문예식
 - 예수재 수록재 복장예식 점안작법 작법무(나비춤)
 - 수계작법과 수계예식 예능 : 붓글씨 쓰기
- ※ 의식 수준에 따라 전문 어장 초빙 전수
- 장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촌길 77 (남산리 106) 용화사 ☎ 전화 : 061)381-2683

담양 용화사 주지 도월 수진 합장